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5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시었다.

협의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정치국은 먼저 5월 28일 현재 전염병전과상황에 대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8만 9, 500여 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10만 6, 390여명이 완쾌되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28일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루직 이 완쾌되고 5.396%에 해당하는 18만 특성들, 각종 분석자료들과 의약품공급 유열자총수는 344만 8, 880여명이며 6, 110여명이 치료를 받고있다. 94.602%에 해당하는 326만 2, 700여명 지역별 전염병전과 상황과 병경과



정치국은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전과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과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조종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포치한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기 위한 실무지도소조들의 활동정형이 통보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준비사업과 관련한 중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또한 기타 정치국은 초기발병지와 전과경로에 대한 연구토의사업들 국가사업방향들에 대한 연구토의사업들 한 국가적인 연구해결결과를 청취하고 이 진행되었다. 해당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본사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밑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올해를 주체위업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가 5월 28일과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송근학, 강추련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총련중앙고문들과 재일본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지》를 남승우부부의장이 낭독하였다.

서한낭독이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사수, 인민보위의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토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친히 강령적서한을 보내주시어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과 총련부흥의 휘황한 실계도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에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렁찬 박수를 터쳐 울리었다.

대회에서는 자 격심사보고가 있는 다음 대회의 안으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금치 못해하면서 우렁찬 박수를 터쳐 울리었다.

대회에서는 자 격심사보고가 있는 다음 대회의 안으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에 제출하는 총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하여》, 《재정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의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첫째의안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총회기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본부의 조직지도력과 지부의 활동력을 크게 높이며 기층조직들을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새시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을 묶어세운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총련결성이래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소동과 민족교육차별책동, 재일동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장



기화되는 대우행전염병의 재앙으로 총련의 모든 활동이 억제되는 미증유의 시련을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과감히 물리치면서 총련 분회를 재건활성화하는 사업과 민족교육사업, 민족문화체육활동과 조국통일사업 등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그들은 긍지높이 토론했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

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성과 교육위원회, 사회주의예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하여 조국의 각 기관, 단체들과 일군들 그리고 해외교포단체들, 일본의 각 단체 및 개인 사들, 해외의 친선단체들, 남조

신의 각계 인사들이 보내는 축전들과 축하인사목화전집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련대성 및 친선단체 인사들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재일본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 따라 재정 결산 및 예산안 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5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승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대회에서는 돌림수님께서만 계시면 주체위업안에 따라 재정 결산 및 예산안 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조건 관철하여 총련의 조직사상적위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재일본조선인운동을 전면적발전의 단계로 확고히 올려세워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총성의 결의를 다지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25기 제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에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백승의 한길로 줄기차게 향도하시어 전대미문의 국난을 과감히 뚫고 조국땅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통성번영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출달승치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련의 각급 기관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음악무용종합공연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 빛나는 총련》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본사기자